



## FTSE 지수 정기변경

### 1. FTSE 지수 정기변경

- 6월 FTSE 정기변경(6/17 리밸런싱)은 종목 편출입이 제한적인 분기 변경. 과소종목에 이벤트 전략 자금의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 존재.
-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엔캠 3종목이 편입되고, 아이진이 편출.
-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을 상승으로 외국인 보유도 대비 마진이 낮아 2차 비중축소가 진행.

6월 FTSE 정기변경 예상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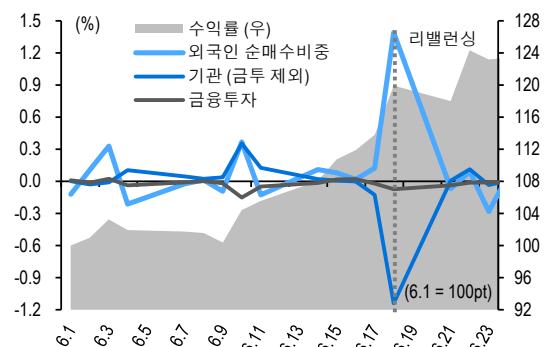
Code	종목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A373220	LG 에너지솔루션	1,254	1.06	0.13
A377300	카카오페이	697	0.97	0.62
A348370	엔캠	92	0.77	0.82
A185490	아이진	-20	-0.36	-0.90
A017670	SK 텔레콤	-283	-0.65	-0.23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개별 이슈와 인덱스 효과의 대중

- 카카오페이는 Alipay 블럭딜로 리밸런싱 규모가 증가. 오버행 리스크 관련 외국인 매도 둔화의 전제 하에서 리밸런싱 효과 기대 가능.
- SK텔레콤의 MSCI 편출 리스크는 유의 필요. 과매도 측면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21.9월 1차 비중축소 당시 외국인 매도가 리밸런싱까지 진행된 점을 상기 필요.
- 엔캠은 인덱스 효과보다는 최근 대차잔고, 공매도 레벨 증가를 고민 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조정 시, 리밸런싱 주간 인덱스 효과를 감안한 대응 필요.

21.6월 하이브 편입 당시, 리밸런싱 주간의 인덱스 효과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FTSE 지수 정기변경

증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FTSE 정기변경예(6/17 리밸런싱) 집중할 시기로 생각한다. MSCI 지수 대비 추종자금 AUM이 낮지만, 동 지수 이벤트는 리밸런싱 주간에 양호한 인덱스 효과를 보였다.

6월 정기변경은 IPO 종목 등을 반영하는 light 리밸런싱 분기인 점에서 종목 편입이 제한적이다. 역으로 과소종목에 이벤트 전략 자금의 유의적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변경에서는 3개 종목 편입과 1개 종목을 편출이 진행된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엔켐이 편입되고, 아이진이 편출된다. 이례적으로 지수 간 승격/강등은 없다. 다만,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을 상승으로 외국인 보유한다 대비 마진이 낮아 2차 비중축소가 진행된다.

[표1] 6월 FTSE 정기변경 예상 수급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대형주 편입	A373220	LG 에너지솔루션	1,184	994,500	1,254	1.06	0.13	8.0	1.8
	A377300	카카오페이	717	112,770	697	0.97	0.62	-7.4	-37.0
소형주 편입	A348370	엔켐	119	11,245	92	0.77	0.82	-8.4	-17.1
소형주 편출	A185490	아이진	57	2,270	-20	-0.36	-0.90	23.1	-13.5
비중 변경	A017670	SK 텔레콤	435	122,109	-283	-0.65	-0.23	-5.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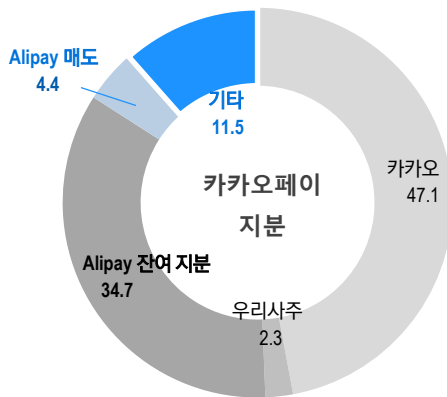
## 2. 개별 이슈와 인덱스 효과의 대중

과소 종목이지만, 개별 이슈가 종목별로 혼재되어 있다. 카카오페이는 Alipay의 블럭딜 이후 외국인의 매도전환이 강했다. 장기보유 지분의 매도와 Alipay의 높은 지분율을 보면 오버행 리스크는 동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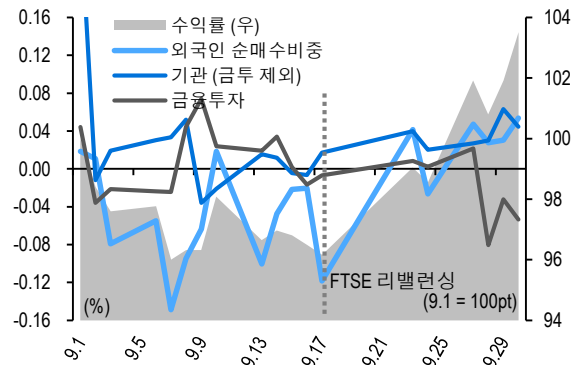
다만, 패시브 관점에서 보면 Alipay의 블럭딜을 FTSE가 이번 변경에 적용할 것을 발표하면서 리밸런싱 규모가 증가했다. Alipay가 잔여지분은 120일 간 보호예수를 적용할 것을 시사한 ECM 보도자료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매도둔화가 확인된다면 단기 리밸런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최근 외국인의 매도는 MSCI 편출 리스크와 FTSE 비중축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21.9월 1차 FTSE 비중축소 당시, 외국인의 매도는 FTSE 리밸런싱까지 지속되었던 경험에 있다. 지수편출 리스크 유익에 대한 시각을 견지하지만, 과매도 측면을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이번 리밸런싱 이후 외국인의 수급전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트1] 카카오페이의 Alipay 불력딜로 FTSE 리밸런싱 규모는 증가. 외국인 매도둔화 시, 단기 리밸런싱 효과를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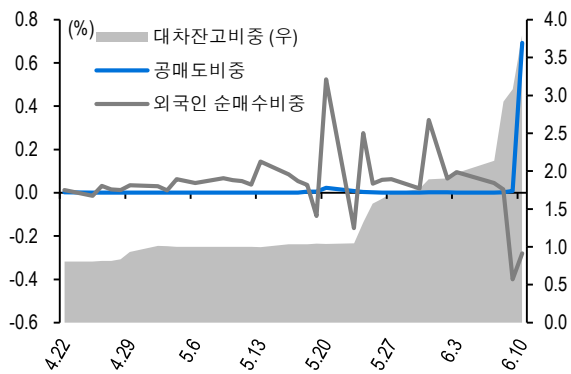
[차트2] SK 텔레콤의 MSCI 편출 리스크는 유익이 필요. 과매도 측면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21.9월 1차 비중축소 당시 외국인 매도가 리밸런싱까지 진행된 점을 상기 필요



엔캠은 스몰캡 지수에서 편입되는 종목이다. 최근 정기변경에서 리밸런싱 효과가 돋보였던 세그먼트였던 점은 사실이다. 당사 추정 리밸런싱 수요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인덱스 효과도 중요하지만, 최근 3거래일 간 시총대비 대차잔고비중이 +1.7%p 상승했고, 전 거래일 시총대비 0.7%의 공매도가 출회된 점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동사의 최근 자금조달에 대한センチ먼트 훼손이 배경일지 모르지만, 인덱스 효과만을 생각한 무분별한 접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개별 종목 이슈는 눈에 띄지 않는다. 상장 당시 편입 허들이 높아 특례편입에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수편입 수요는 더 증가했다. Light 리밸런싱의 대표적인 Case인 21.6월 하이브 편입 당시, 외국인 수급이 주도한 인덱스 효과는 리밸런싱 주간에 돋보였다. 전주 글로벌 증시의 성장주 조정이 국내 배터리셀 체인에도 조정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 리밸런싱 효과를 감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차트3] 엔캠은 인덱스 효과보다는 최근 3거래일 간 대차잔고 급증과 공매도 레벨 급증을 고민 필요



[차트4] LG 에너지솔루션 편입은 배터리셀 체인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21.6월 하이브 편입 당시 리밸런싱 주간의 인덱스 효과를 감안한 대응이 필요

